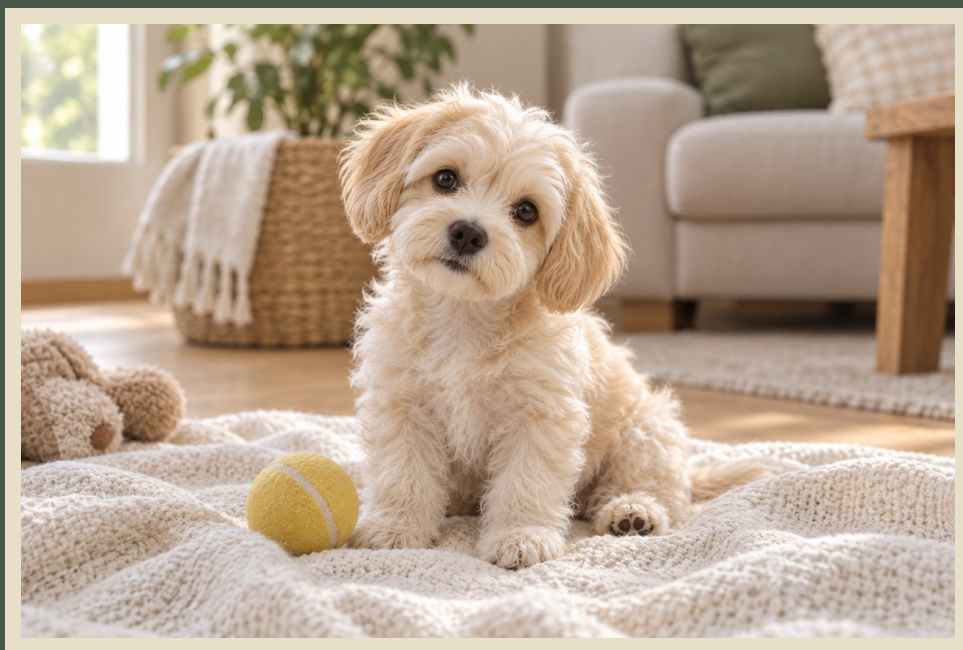


A GROWING LOVE / VOL. 01

보리의 성장앨범

너와 걷는 모든 날



보리의 첫 발자국부터, 함께 자라는 우리까지

OVER THE RAINBOW

너에게 쓰는 첫 문장

보리에게.

너를 만나기 전에도 봄은 왔지만,

너와 걷고 나서야

꽃이 피는 속도를 알게 되었어.



노란 공보다 세상이 더 컸던 너

작은 발을 한 번 내딛고, 우리를 한 번 올려다보던 날.
잘해 주고 싶다는 마음이 조용히 시작됐어.

너를 부르는 이름이 우리 집의 인사가 되었다



처음에는 낯선 소리마다 귀를 기울였지.
이제는 현관 앞에서 누구보다 먼저 우리를 알아봐.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 이렇게 설렘 줄 몰랐어.

처음보다 조금 더, 편안하게



너의 자리가 생기고, 우리의 하루가 바뀌었다.

너를 이루는 작은 취향들

01 노란 공이 굴러가는 소리

02 산책 전, 목줄을 꺼내는 순간

03 햇살이 길게 머무는 자리

하나씩 알아갈수록, 더 사랑하게 되는 너.

평범해서 더 소중한



노란 공과 함께 뛰놀던 산책길



초록 공을 가져와 놀자고 하던 순간

매일 비슷한 듯 조금씩 다른 너의 표정들.

II

너의 속도로 세상을 배우는 중

익숙한 길에서도 오래 멈춰 서던 너.
덕분에 우리도 서두르지 않는 법을 배웠어.

YOUR LITTLE WORLD



오늘도 한 뼘 더 넓어진 세상

함께 자란 건 너만이 아니었어

처음 만난 날

작은 발소리 하나가 집을 가득 채웠다.

함께 걷기 시작한 날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가족이 되었다.

어느새 자란 너

품에 안기는 무게보다 사랑이 먼저 자랐다.

기쁨은 이런 얼굴을 하고



그날의 너를 보고 있으면, 지금의 우리도 웃게 돼.

“

산책이 끝나도,
너와 나란히 걷는 마음은
끝나지 않아.

특별한 날보다, 너와 보낸 보통의 날들을 기억해.

조금씩 쌓여, 우리라는 계절



아기 보리 · 노란 공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던 때



햇살 아래 곤히 잠든 오후

어린 날의 작은 몸과, 우리 곁에서 편안해진 모습.

우리의 가장 좋은 사진에는 늘 네가 있다



카메라를 보지 않아도 괜찮아.

공 하나에 함께 웃던 저녁, 무릎 옆에 기댄 온기.

우리가 남기고 싶은 건 잘 찍힌 모습보다 함께였다는 사실이니까.

함께여서 완성된 한 장

가장 가까운 곳의 사랑



작은 공 하나로 온 가족이 웃던 저녁



산책을 마치고 함께 쉬던 현관 앞

누군가의 곁에서, 아무 걱정 없이 쉴 수 있다는 것.

오래 전하고 싶은 말

보리야,

너는 평범한 하루를 기다려지는 하루로 바꿔 주었어.
네가 멈춰 서면 우리도 멈추고, 네가 뛰면 우리도 웃었지.

사진 속의 너는 조금씩 자라는데,
너를 처음 안았을 때의 마음은 아직 그대로야.

앞으로의 길도 함께 걷자.
조금 느려도, 자주 쉬어 가도 좋아.
우리는 늘 네 옆에 있을게.

너의 보폭을 사랑하는 가족이

너의 내일에 바라는 것들

01 처음 가는 길에서도 편안하기

02 아무 걱정 없이 깊이 잠들기

03 매일 한 번은 신나게 꼬리 흔들기

크고 특별한 일보다, 작고 평안한 매일을.

TO BE CONTINUED

내일도,
같이 걸을까?



너의 보폭을 사랑하는 가족이

PAWPRINT ALBUM

보리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 자라고 있어요.

이 책의 다음 페이지는
너와 함께할 내일입니다.

THE DAYS IN SUNLIGHT

발자국앨범 · 오버더레인보우